

다도심매, 더위도 못 막려



◇ '종강일'이 없는 차 고전강좌 수강생들이 유건집씨의 '대관다론' 강의를 듣고있다.

“피서(避暑), 더위를 이기는 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배움의 열기로 더위마저 잊고 사는 차인(茶人)들이 있다. 차예절과 다도의 정신을 알고 차를 마실 때 진정한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차 고전 강좌가 열리는 서울 법원사 다도예절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부천 석왕사 현장들 각각 찾아가봤다.”

■ 부천 석왕사 다도예절 강좌

초심자들의 茶道 입문기

“차는 색과 향과 맛을 느끼며 세 번에 나누어 마십니다.”

7월 오전 10시, 다도예절강좌가 열리고 있는 부천 석왕사 전통차점 다인. 습도가 높아 땀이 저절로 흐르는 바깥과는 달리 차집 안은 서늘한 기운마저 감돈다. 다구를 앞에 놓고 나란히 앉은 5명의 수강생들은 다도 사범 오숙 씨의 설명에 따라 차를 따르고 조용히 차를 음미한다.

지난 6월부터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 강좌의 수강생은 모두 8명. 주부들이란 탓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지만, ‘차를 제대로 배워보자’는 마음으로 함께 수강신청을 했다. 덕분에 요즘 수강생들은 ‘다도삼매경’에 빠져 있는 중이다.

“차를 마신지는 10년 정도 됐지만 정식으로 다도를 배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김한순 씨는 “스님이나 도반들이 차를 권할 때 어떻게 마셔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는데, 강의를 듣고 차 마시는 법을 배운 것은 물론 차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한다. 수강생 박경애 씨는 “차를 마실 때는 한 순간 한 순간 집중해야 하므로 번뇌가 없어지고 마음이 고요해진다”며 직접 낸 차를 한 잔 권한다.

석왕사에서 처음으로 다도강좌를 연 사범 오숙 씨는 “여름에는 덥고 목마르다 고 빙과류나 탄산음료 등 찬 음식에 손이 가기 쉬운데, 뜨거운 차를 마심으로써 정신을 맑게 하고 식중독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고 말한다.

“다도를 배워서 좋은 점”을 묻는 질문에 수강생들은 한결같이 “그동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다구를 꺼내 차를 우리고, 가족과 함께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든다. 그만큼 차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치런히 놓여진 다구 위에 다포를 덮고 자리를 정리하는 수강생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오른다. ‘차 마시는 과정이 수행’이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간다. 이들의 말에서 차인의 여유가 느껴진다.

■ 서울 법원사 차 고전강좌

차를 읽고 차인 ‘품격’ 갖추기

“차를 심어서 생산하는 땅은 반드시 햇볕이 드는 언덕이어야 하며, 차밭은 반드시 그늘져야 한다. 대개 물의 성질이 차가 워 워 이파리가 억눌러 매마르기 때문에 맛이 거칠고 얇게 된다.”(대관다론> ‘지산’ 중)

중국 북송의 휘종 황제가 쓴 <대관다론(大觀茶論)>을 읽는 소리가 나직하게 울려 퍼지는 곳은 서울 법원사 2층 서울불교전 문강당. 30여 명의 수강생들이 강의를 맡은 수필가이자 차고전연구가인 유건집 씨를 따라 책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 읽으며 뜻을 새기고 있다.

서울 종로구 화동동의 전통차점 다담산을 운영하는 김미려 씨(한국차인연합회 다예람 지회장)의 제의로 시작된 이 강좌는 처음 10여 명의 지인들로 시작해 지금은 30

여 명으로 수강생이 늘었다. 수강생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강좌가 결코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강의를 듣는 이들 대부분이 다른 단체나 문화센터, 사할 등에서 다도 강좌를 하고 있는 사범이거나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에서 다도를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다. 때문에 강좌는 단순한 ‘주입식’이 아니라 개방적인 토론으로 이어진다.

강좌의 또 다른 특징은 ‘개강일’을 있지만 ‘종강일’은 없다는 것이다. 지난 2월부터 진행된 <다부> 강좌에 이어 지금의 <대관다론>, 이후 <동다송>과 <다신전>, <다경> 등 현존하는 다서들을 3개월씩 강독하는 일정이 이어진다. ‘체력이 다할 때까지 강좌를 열겠다’는 것이 강의를 하는 이나

듣는 이 공통의 서원이기 때문이다.

경희대 대학원에서 생활예절다도를 전공하고 있는 장정화 씨는 “대학원에서도 차 고전을 공부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곳에서 한자는 물론 차에 관련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말한다. 매주 수요일 남양주 수송사에서 다도를 가르치고 있는 윤부용 씨는 “단순히 원전 강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한 고전들을 함께 찾아 읽으며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다”며 “오는 9월 서울 종로구 정독도서관에서 열리는 <다부> 강좌에는 차에 관심 있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news.com



◇다구를 다루는 법부터 차를 마시는 자세까지 세심하게 배우고 있는 부천 석왕사 다도예절강좌 수강생들.

우리지

보성녹차



보성제가 선보이는 ‘보성 녹차’는 이른 봄 따스한 햇빛을 머금고 자라 아미노산 성분이 풍부해 맛이 달고 부드럽다. 또 손으로 비벼고 뒤는 과정을 거쳐 증제차의 산뜻한 맛과 뒤음차의 고소한 맛이 조화를 이룬다. 100g, 4만원. (061)853-4116

최근 녹차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대구 지역의 한 대학에서 녹차의 유효한 성분이 카드롬 중독에 의한 골(骨)대사 장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동물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증명했다.

대구 가톨릭대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 이순재 교수팀은 최근 발견된 과학잡지 <라이프 사이언스> 8월호에 게재된 논문에서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Catechin) 성분이 카드롬 축적으로 인한 골대사 장애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순재 교수팀은 인위적으로 사육한 ‘카

녹차, 카드롬 성분 골대사 장애에 효과

대구 가톨릭대 이순재 교수팀 논문 발표

드롬 중독 쥐’ 들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 카테킨을 넣지 않은 사료와, 0.25%와 0.5%의 카테킨(질량 기준)을 섞은 먹이를 주면서 20주 동안 ‘정상그룹’과 비교 관찰했다. 그 결과 카테킨을 0.25%, 0.5% 투여한 그룹의 골밀도가 각각 132%, 133% 올라가 정상그

룹(133%)과 거의 같았으며 골무기질 함량도 5.4배와 5.5배로 증가해 카드롬으로 인한 장애가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카드롬 중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카테킨’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의 한 종류로, 녹차 100g 당

10~15g이 들어 있다.

이순재 교수는 “카드롬은 흡연이나 오염된 대기, 식품 등을 통해 체내에 축적돼 갈슘의 체내흡수를 막아 골무기질의 손실 등을 가져와 골연화증이나 골다공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번 실험을 통해 카테킨 성분이 이 같은 골대사 장애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최근 녹차 성분이 건강에 좋다는 연구결과가 잇달아 발표되면서 녹차음료 등 가공식품들도 잇달아 개발되고 있다. 대구=박원규기자

중풍(뇌졸중)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약제제 안티 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을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중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 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중(중풍), 동맥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환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픈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안티하이퍼

2달분 258,000원

구입신청 033-255-5669 오리엔탈제약(주)

승복 법복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먹물, 마직 적삼 · 바지 : 150,000
 동방 · 바지 : 180,000
 두루막 : 150,000
2. 무명 수재 한국산 먹물 염색 적삼 · 바지 : 180,000
 동방 · 바지 : 220,000
 두루막 : 180,000
3. 모시론 (폴안해도 됨) 적삼 · 바지 : 150,000
 동방 · 바지 : 180,000
 두루막 : 150,000
4. 면 래우사 특징 · 세탁시 폴안해도 됨 적삼 · 바지 : 130,000
 동방 · 바지 : 160,000
 두루막 : 130,000
5. 장삼 특징 · 가볍고 통풍이 잘됨 모직 : 180,000 ~ 250,000
 썸머쿨 : 200,000
6. 신도복 (단체주문받습니다) 조끼 · 바지(모직회색) : 60,000
7. 셔츠(차이나 라운드) · 겹말 · 손기방

◆유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 : 지어진 중앙로역 3번출구앞(동아백화점 방향 입구)
 34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이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판매점 모집)

『불교인을 위한 기독교 바로알기』

회람편저

초판 1쇄 완전 매진

이제껏 이렇듯 통렬하게 기독교의 오류를 지적한 책은 없었다. 이 책은 무조건적인 신앙의 소망과 지혜로운 이성의 경계를 밝혀 줄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끼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무익한 투쟁이 그치고 원한이 해소되며 산과 들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을 알게 될 것이다.

-저자 서문 중에서-

기독교의 독선적 교리가 인류에게 끼친 해악과 그 결과에 대해 가장 솔직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 책.

기독교의 신 여호와와는 절대로 하나님은 될 수 없다! 당신들이 신의 말씀이라고 거룩하게 여기는 성경을 보라! 그 속에 가득한 인간에 대한 잔인함과 불신, 논리의 모순을 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끝없는 죄악의 반복일 뿐이다!

본서는 가까운 불교서점에서 구입하시거나 전화와 우편주문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가 12,000원

- ◆ 전화 및 우편주문시 3권 이상을 구입하시는 경우 배송료가 무료입니다.
- ◆ 불사용 및 단체 구입시 구입권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가격을 할인해 드립니다.

◆구입문의 : 도서출판 부루나 (032) 577-5123
 ◆담 당 자 : 018-311-9497
 ◆입금계좌 : 조흥은행 968-01-009521 김석남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들이 필요로 하는 법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예담승복 직원들 -

승복

- 적삼, 조끼, 바지 W160,000
- 동방, 바지 W160,000
- 두루막 W140,000
- W60,000

◆모직(50%) ◆광목 ◆순면(무늬있는 먹물)

라복

- 구림이 없고 세미한 용이한 재질 A. W130,000 B. W160,000
- 마 W160,000
- 모직 W160,000

셔츠

- 리운드형
- 차이나형
- 겹말
- W20,000 ~ 35,000원

해동승복
 대구 고신대역 4호점 동양명품점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